■ 33대 집행부 '1대대 종책' 평가와 과제 ① 승려복지

수행-전법교화 '전념'…복지시스템 '가동'

2013년은 33대 총무원 집행부 임기 마지막해이자, 34대 총무원장 선출 및 집행부 출범이 있는 해이다. 33대 임기 반환점 앞두고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10대 종책과제를 선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종무행정체계화
② 사찰운영시스템 개선
④ 불교관계 국가제도 및 정책개선
⑤ 승가교육 개선
⑥ 전통문화보존
⑦ 자비 나눔 실천
⑧ 사회적 참의 실천
⑨ 자성과 쇄신 결사
⑩ 한국불교 세계화

원광 수행하고 포교했던 스님이 입대해 병을 얻었는데, 요양원 곳이 없어 결국 타종교 시설에서 생을 마감했다. 80대 노스님 두 분이 기거할 곳도 없고 활동도 사람이 없어 시골의 빈집을 얻어 살다가, 결국 열악 사이에 두 분이 차례로 입적했다.

스님들 사이에서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는, 안타깝지만 사실이다. 출가자로서 세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후를 걱정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그간 종단에서는 승려노후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나도 나도 취지는 공감했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감으로 망두웃게 내놔 못했던 승려복지사업이 10년 넘짧게에서 시작됐다.

종단은 지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공포하고, 총무원 총무부 산하에 조계종 승려복지위를 설립했다. 종단이 전통하는 승려복지는 크게 보건의료, 주택안내, 수행거주분야로 나뉜다. 보건의료는 소임을 맡고 있지 않아 보시금을 받지 못하는 만승에 이상의 스님들에게 의료비나 요양비 지급과 건강인 등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행거주는 해탈 소임이 보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여시 만6세 이상 무슨일자 스님들 대상으로 한다. 수행거주분야는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만6세 이상의 스님들이 입적할 때까지 함께 살며 수행하고 정진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의료비 및 요양비 지급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서는 96세, 만났 3세의 비구니 스님에게 요양비를 처음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어 승려복지위는 앞으로여기를 앞고 있는 비구니 스님에게 소송의 지원금을 전달해 만6세 이상의 스님들이 입적할 때까지 함께 살며 수행하고 정진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부터 의료비 및 요양비 지급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서는 96세, 만났 3세의 비구니 스님에게 요양비를 처음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어 승려복지위는 앞으로여기를 앞고 있는 비구니 스님에게 소송의 지원금을 전달했었고, 뉘늠웰, 디스크,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등 6명에게 요양비 일부를 지원했다.

수행거주는 2011년 4월부터 시작되다, 종단은 소멸여러모도 일을 적으로 스님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려노후복지시설은 교구본사의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는 분야다. 제2보구본사 선운사가 고령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요교복지공동체 석상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 좋은 예다. 교구별 승려복지위원들 구상해 교구재정에 대한 복지를 교구가 책임지는 현황가 돼야 하는 게 궁극적인 승가복지의 목표다.

결국 수행연금과 노후복지시설 건립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승려복지 성공과 관건은 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욕이 내년부터는 만6세 이상 무소일자 스님에게 수행연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종단은 생수판매 나 상조회 등을 통해 승려복지 기금을 마련했고, 스님들은 사후재산 기증서약을 통해 승려복지에 앞조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약 17억원 정도지만, 수행연금이 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연간 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마련을 위해 승려복지위는 3월부터 대대적인 승보공양실천운동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승단을 외호하고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 재가자의 원력 모아 복지기금을 마련하자는 얘기다. 한국 사원을 직접 찾아가 신도들을 만나 승보공양의 가치와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심재한수조사를 맞이, 영재 종단에 만6세 이상의 스님은 약 150여명 된다고, 스님들이 실제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묻고 준비해야는 취지다. 전파로 스님들에게 상담을 해주며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서비스를 확인해 주는 승가복지포털시비스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시범교구를 선정해 지역별 실천모델을 설정하는 것도 올해 주요 목표다.

승려복지는 아직까지 성과보다 과제가 더 많다. 출가자서 열반까지 스님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승려복지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하려면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승려복지원장 지연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해년 약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종단의 공복가금확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승려복지원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승보공양운동에 사부대중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경 기자 hjpm@buddgo.com

■ 어산작법학교 학장 이·취임

"평교사로 학인지도 힘쓸 것 평생 수행삼아 정진해주길"

15년 공들인 인욕스님

1997년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개원부터 지금까지 학장으로서 학인들을 지도해온 인욕스님(조계종 의례위원장 사)이 15년간 맡았던 학장 소임을 내려놨다. 지난 6일 서울 개운사 대원암 어산작법학교에서 이임식을 가진 인욕스님은 "학교도 안정되었고, 후학들에게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원임을 권유했는데 막상 시원섭섭하다"며 "평교사로서 학인들 지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어산작법학교는 종단이 불교문화의 대표적인 전통의식인 수륙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으로서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제2교구본사 봉선사에 염불원을 개원해, 시범운영해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님은 종단의 의례지식을 이끌어가는 한 명의 출가자로서 보도 모지 않았다. "의례에 대한 종단의 관심이 지금처럼 이어지는 것과 함께 많은 스님들이 의식을 평생수행으로 삼아 정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한글의식교육 병행할 계획 어떤 수행보다 뜻깊을 것"

신임 학장 법안스님

지난 6일 어산작법학교 신임 학장으로 법안스님(대성사 주지, 조계종 염불교육지도위원 사본)이 취임했다. 2008년부터 어산작법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했던 법안스님은 교육원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고 "승가대학 제학 시절 인욕스님으로부터 소임을 배운 게 인연이 돼 지금까지 의례의식을 공부하고 정수라고 있는데 감동가 남다르다"며 "생이학교장 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학인 스님들과 학마해져 노력해보겠다"고 인사했다. 또 스님은 전통의식 외에도 최근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글의식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님은 "종교에서 의례는 빼놓을 수 없다"며 "스님들이 공혜야 할 의례과 의식을 배우는 어산작법학교는 종단의 스님이라면 한번은 거쳐가야 할 곳"임을 강조했다. 자원해준 종단을 위해 조계종은 물론, 함께 학인들을 지도해준 교학국장 성마스님에 대한 고마움도 덧붙였다.

"앞으로 종단의도에 해야할 중요한 과제들에 더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의례의식 한글화와 함께 불교의 대표적인 전통의식인 수륙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으로서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제2교구본사 봉선사에 염불원을 개원해, 시범운영해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님은 종단의 의례지식을 이끌어가는 한 명의 출가자로서 보도 모지 않았다. "의례에 대한 종단의 관심이 지금처럼 이어지는 것과 함께 많은 스님들이 의식을 평생수행으로 삼아 정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지난 6일 아랜드운동장 지원단의 예방을 받고 격려했다.

"여러분이 종단의 얼굴"

총무원장 스님, 출범 앞둔 아랜드운동장 지원단 격려

종단 공익법인 아랜드운동장의 나눔과 사회공헌을 조력할 지원단이 설립됐다. 아랜드운동장 이사장 지승스님은 최근 총무원장스님 지난 6일 한국불교여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랜드운동장 지원단"의 예방을 받고 격려했다.

올해로 출범 4년을 맞은 아랜드운동장이 나눔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창단해는 지원단은 현재 40여 명의 재가불자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장단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정기뿐자지모서 산정적인 나눔기금 조성을 도맡을 한 이나, 임 재적 기부자를 발굴하고 홍보 및 모연 활동을 적극 나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랜드운동장은 지원단을 둠으로 상대 불교 나눔문화 활성화에 대한 진지해 사명감 대표하는 공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희 단장 등 14명 단원들이 예방을 받은 총무원장 지승스님은 "아랜드운동장은 종단의 얼굴이다. 여러분도 종단의 얼굴이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며 "종단이 전개하는 5대 결사 가운데 나눔결사에 지원단도 앞장서 나눔해라 큰 성과를 거두게 돼 기쁘다"고 격려했다.

김희영 기자 hjpm@buddgo.com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溪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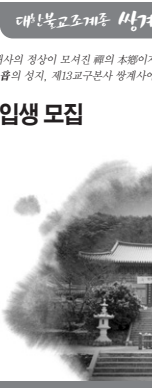
2013학년
www.ssangyesa.net

육조혜능대사의 정상이 모셔진 禪의 本寶이자, 녹차의 시배지이며, 해동법종의 최초 발상지
禪·茶·音의 성지, 제13교구본사 쌍계사에서 **율원, 승가대학**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신입생 모집

- 지원자격 _ 비구스님 (2013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 모집인원 _ 00명
- 접수일자 _ 2013년 1월 10일 - **3월 31일(일) 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및 면접
- 면접일자 _ 2013년 2월 28일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2. 승려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통
  3. 수행이력서 1통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1통
  5. 건강진단서(보건소 제외) 1통
  6. 증명사진(반명함판) 3장
- 문 의 처 _ (055)883-1901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08(쌍계사)

쌍계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원허



쌍계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 입학자격 _ 대한불교조계종 사미계 수지자(10년 을 사미계 수계자 입증가능)
- 모집대상 _ 지원년(1학년) 00명, 사집반(2학년) 00명, 사교반(3학년) 0명
- 제출서류 _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본 (성명표시) 1통
  (3) 수행증명서, 행자교육증명 사본 각1통
  (4) 증명사진 4매
  ※ 편입생은 수료증명서 지참 필 요
- 접수마감 _ 불기2557년(2013년) **3월 31일(일) 까지**
- 전형방법 _ 서류심사 및 면담
- 준 비 물 _ 반려가사, 장삼, 승려증
- 문 의 _ 경원 (055)883-1905, 종무소 (055)883-1901
- 기 타 _ 전액년 정교재 무상지원, 편신실 완비, 의료비 지원
  미국 원어민강사 상주 매일 아침 영어회화 강좌

쌍계사승가대학 학장 통광

교수 월호, 덕원, 해봉, 상민, 신홍
영어강사 Daniel M. Burkus(뱅쿠버시나아 주립대 졸업)